| 시 민 |
|---|

| 홍보교육팀장 | 소방행정과장 | 소방서장 |
|---|---|---|
| 김춘수 | 이승일 | 08/24<br>권병용 |

| 협 조 | | |
|---|---|---|
| | 재난관리과장 | 代김철수 |
| | 예방과장 | 김경근 |
| | 현장대응단장 | 代한효철 |
| | 담당자 | 육심규 |
| | 담당자 | 이빛나 |

| 문서번호 | 소방행정과-10205 |
|---|---|
| 결재일자 | 2015.8.24. |
|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
| 방침번호 | |

함께 만드는 함께 누리는 서울

- 서울소방 최초, 상설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 1주년 -

# 『상설 CPR 체험장』 운영 결과

2015. 8.

# 강 서 소 방 서

함께서울 서울특별시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 구 분 |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 비 고 |
|---|---|---|---|---|
| 시민 참여 |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br>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 ■ | |
| 전문가 자문 |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br>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 ■ | |
| 갈 등 |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br>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 ■ | |
| 사회적 약자 배려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br>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 ■ | |
| 선거법 |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br>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 ■ | |
| 안 전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br>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 ■ | |
| 타 기관 |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br>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 ■ | |
| 홍 보 |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br>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 □ | |
| 바른 우리말 |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br>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 | |

- 서울소방 최초, 상설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 1주년 -

# 『상설 CPR 체험장』 운영 결과

서울소방 최초의 심폐소생술 전용 교육장으로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서소방서 상설 CPR 체험장』 1년 동안의 운영 분석 결과임.

## Ⅰ CPR 체험장 설치 경과

### 추 진 배 경

❑ **강서구, 서울 최저 수준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 (→ 상설 CPR 체험장 필요성 대두)

- 최근 3년간 심정지 환자 이송 12.2% 증가(2010년 3,726명 → 2013년 4,179명 / 453명 증가)
- **강서구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서울 최저 수준**(서울 평균 8.7%, 강서구 3.3%) *2012년

❑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최초 발견 시민의 역할 중요**

- **4분이내 CPR 시행 시 소생률 50%, 4분이내 구급차 현장 도착률 58.23%** (서울시, 2013년)
-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인지율 74.9%이나 **실제 가능 18.4%로 저조**(폴리시앤리서치, 2011년)

### 추 진 경 과

❑ **4분의 기적!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PR체험장 설치 계획 수립('14.5월)**

- 누구나 찾아와 CPR, AED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소·소·심』 시민교육의 場**
- 청사 1층 창고를 체험장 설치 장소로 선정 → **시민 접근성** 향상 및 **초도효과** 극대화

❑ **강서구 유관기관 협조 및 재능기부를 받아 최고의 CPR체험장 설치('14.5월)**

- 강서구 **기관장협의회** 회의 안건 상정 → 유관기관 협조(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 시민의 입장에서 **디자인** & **설계**로 쉼이 있는 공간 구성 → 재능기부(호서대학교 지문규 교수)

## 설 치 결 과

❑ 장소/면적 : 청사 1층 창고+복도〔64.5㎡〕

❑ CPR 체험장 구성

○ **교육 장비 : 빔 프로젝트, AMX 프로그램 등**

○ **실습용 장비 : 마네킹 18개**(실습용 13개, 기도폐쇄실습용 1, 영아 4), **AED 6개**

| | | |
|---|---|---|
| | | |
| 성인 마네킹 | 영아 마네킹 | 기도폐쇄 마네킹 |

❑ CPR 체험장 운영 : 연중 24시간 체험 가능 공간

○ **프로그램** : 2시간(이론 30분, 실습 60분, 개별 연습 30분)

○ **교육강사** : 교육담당(2명), 수호천사(7명)

## Ⅱ CPR 체험장 설치 모습

(Before)

(After)

## Ⅲ 그 동안 주요 경과

☐ **체험장 등 설치 기본 구상 : 2013.11월**
○ 심정지 환자 소생률 등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구조구급팀)

☐ **체험장 설치 구체화 및 본부 발표 : 2014.3월**
○ 2014년 우수 청렴대책 발표 시(2014.3.7.) 설치 계획 보고(서장님)

☐ **상설 CPR 체험장 기본 계획 수립 : 2014.5.2.**
○ 소방행정과-5365('14.5.2)호 "상설 CPR 체험장 설치 계획"

☐ **상설 CPR 체험장 운영 개시 : 2014.8.21.**
○ 소방행정과-9770('14.8.21)호 "상설 CPR 체험장 운영 개시 계획"

☐ **상설 CPR 체험장 교육 시민, 남편 살림 : 2014.12.22.(월)**
○ '14.12.8.(월) 교육 후 자택에서 남편이 심정지 발생으로 CPR 실시(→ 환자 소생)

☐ **상설 CPR 체험장 전담 직원 배치 : 2015.1.14.~3.13.**
○ 구급대원(소방교 오유미) 전담 근무 **2015.3.16.출산휴가*

☐ **상설 CPR 체험장 '수호천사' 배치 : 2015.3.24.~ 현재**
○ 소방행정과-3148('15.3.23.)호 "수호천사와 함께하는 CPR 체험장 운영 계획"

☐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생 모집 : 2015.4.6.~ 현재**
○ 행정자치부 주관하는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한 정기 교육생 모집

☐ **초등교 4학년 이수빈 학생, 50대 아저씨 살림 : 2015.4.9.(목)**
○ '15.4.9(목) 교육 3시간 후 쓰러진 50대 아저씨 심폐소생술 실시

☐ **중국인 관광객 상설 CPR 체험장 방문 체험 :2015.5.8.(금)**
○ 대한민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30명 CPR 체험장 방문 교육 실시

☐ **상설 CPR 체험장 정기 교육 운영 횟수 조정 : 2015.5.11.(월)**
○ 횟수 : 2회 → 3회(10시, 14시, 16시) / 교육 참여 시민 증가

☐ **메르스 발생에 따른 체험장 운영 중단 : 2015.6.8.~7.3.**
○ 메르스 발생에 따른 안전조치로 상설CPR체험장 정기교육 취소

☐ **상설 CPR 체험장 운영 재개 : 2015.7.6.(월)**
○ 정기 교육 재개 및 수호천사 근무 조정(오전 오후 각 1명 → 오후 2명)

☐ **강서소방서 상설 CPR 체험장 운영 1주년 : 2015.8.21.(금)**

# Ⅳ 교 육 실 적

## ☐ 교육 기간 : 2014.8.21.~2015.8.20.(1년)

## ☐ 교육 인원 : 5,064명(1일 평균 22명)

| 구 분 | 계 | 14.8월 | 14.9월 | 14.10월 | 14.11월 | 14.12월 |
|---|---|---|---|---|---|---|
| 인 원 | 820명 | 72 | 206 | 221 | 182 | 139 |
| 기 간 | 90일 | 8 | 19 | 21 | 20 | 22 |
| 1일 평균 | 9명 | 9 | 11 | 11 | 9 | 6 |

| 구 분 | 계 | 15.1월 | 15.2월 | 15.3월 | 15.4월 | 15.5월 | 15.6월 | 15.7월 | 15.8월 |
|---|---|---|---|---|---|---|---|---|---|
| 인 원 | 4,244명 | 230 | 622 | 563 | 562 | 795 | 235 | 809 | 428 |
| 기 간 | 137일 | 21 | 17 | 22 | 22 | 19 | 5 | 20 | 11 |
| 1일 평균 | 31명 | 11 | 37 | 26 | 26 | 42 | 47 | 40 | 39 |

*2015.6.8.(월)~7.3(금) 메르스 확산에 따른 상설CPR체험장 운영 잠정 중단
*2015.8.17.(월)~8.19(수) CPR 체험장 바닥 보수공사로 운영 잠정 중단

## ☐ 교육 참석자 세부 분석

### ○ 연령별

| 구 분 | 계 | 10세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 계 | 5,064 | 154 | 1,749 | 1,169 | 751 | 895 | 297 | 49 |
| 비 율 | 100% | 3% | 35% | 23% | 15% | 18% | 6% | 1% |

### ○ 성 별

| 계 | 남자 | 여자 |
|---|---|---|
| 5,064명 | 2,031명(40.1%) | 3,034명(59.9%) |

### ○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참석자 현황

**인정 기준*

| 계 | 2015.4월 | 2015.5월 | 2015.6월 | 2015.7월 | 2015.8월 |
|---|---|---|---|---|---|
| 1,690명 | 57명 | 259명 | 387명 | 657명 | 330명 |

*1365 자원봉사 포털 등록 : 2015. 4. 6.(월)부터 모집

# Ⅴ 교육 후 CPR 실시 사례

## 1 나 미 혜 주부

### ☐ 상설 CPR 체험장 교육

○ 일시/장소 : 2014.12.8.(월) / 강서소방서 「상설 CPR 체험장」

○ 교육 수료 : 나미혜(여, 49세), 정정민(자녀, 21세)

○ 교육 계기 : 평소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신문 보도를 보고 자녀와 함께 CPR을 배우기 위하여 강서소방서 방문

### ☐ 심폐소생술 실시

○ **일 시** : 2014.12.22(월) 23:08

○ **장 소** : 강서구 방화대로 47길 55

○ **구 급 대** :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대

○ **출동 시 상황**

√ 남편(정봉수, 54세)가 물을 마신다며 일어서는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 보호자(나미혜, 49세)는 119 신고 후 구급대가 현장 도착 전까지 CPR 실시

**심정지 환자 소생 사례(CPR 실시) 보고**

「상설 CPR 체험장」 교육 수료 후 가정에서 심정지 발생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초기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린 미담사례 보고입.

☐ 출동 개요

○ 일 시 : 2014.12.22(월) 23:08

○ 장 소 : 강서구 방화대로 47길 55 OO아파트 OO동 906호

○ 구 급 대 :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대

○ 출동 시 상황

✓ 남편(정OO, 54세)가 물을 마신다며 일어서는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 보호자(나OO, 49세)는 119 신고 후 구급대가 현장 도착 전까지 CPR 실시

○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23:08) **보호자에 의한 CPR 실시**(구급대 도착 전까지)

(23:16) 구급대 환자평가(의식 · 맥박 확인) → 제세동기 리듬분석(→심실세동)

(23:17) 제세동(150J Shock 1회 실시) → 인공호흡 및 흉부압박 실시

(23:19) 의식(혼수 상태), 호흡(30회/분), 맥박(30회/분) → 구급차 이송

(23:30) 구급차 이송 중 의식 ·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 산소포화도 등 확인

(23:40) 이대 목동 병원 응급실 인계

☐ 상설 CPR 체험장 교육

○ 일시/장소 : 2014.12.8.(월) / 강서소방서 「상설 CPR 체험장」

○ 교육 수료 : 나OO(여, 49세), 정OO(자녀, 21세)

○ 교육 계기 : 평소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신문 보도를 보고 자녀와 함께 CPR을 체험하기 위하여 강서소방서 방문

< 내부 보고서 >

**경향신문** 2014.12.29.字 인터넷

**심폐소생술 꼭 배워두세요…응급처치로 남편 살린 아내**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평소 심폐소생술(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배워둔 시민이 심정지 상황에서 초기 응급처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29일 서울 강서소방서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나모씨(49·여)가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편 정모씨(54)에게 차분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정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평소 심폐소생술에 관심이 있었던 나씨는 강서소방서에서 지난 8월21일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나씨는 지난 8일 자녀와 함께 강서소방서 1층에 설치된 '상설 CPR 체험장'을 찾아 초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체험장에는 마네킹 등 실습 장비가 구비돼 있다.

나씨가 교육을 받고 2주 뒤, 남편 정씨가 집에서 물을 마신다며 일어서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나씨는 당황했지만,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씨는 의식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지만 나씨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데다 구급대원이 신속히 응급처치를 해 정씨는 병원 도착 후 의식이 돌아왔다.

나씨는 "얼마 전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에 남편을 살릴 수 있었다"면서 "미리 심폐소생술을 배워두길 잘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권경문 강서소방서장은 "강서구의 심정지 환자 소생률(3.3%)을 서울 평균(8.7%)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시민 누구나 체험장을 찾아 심폐술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서소방서 측은 이달 25일까지 교육 수료 인원이 121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 언론 보도 >

## 2 이 수 빈 학생

### ☐ 상설 CPR 체험장 교육

○ 일시/장소 : 2015.4.9.(목) 15:00 / 상설 CPR 체험장

○ 교육 수료 : **이수빈(여, 11세)** *수명초등학교 4학년 4반

○ 교육 계기 : 평소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신문 보도와 인터넷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CPR을 배우기 위하여 강서소방서 방문

### ☐ 심폐소생술 실시

○ **일 시** : 2015.4.9.(목) 19:04

○ **장 소** : 강서구 내발산동 749-8 마곡수명산파크 2단지 입구

○ **구 급 대** :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대

○ **출동 시 상황**

√ 행인(김동원, 51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최근 디스크 수술 경력 있음)

√ 이수빈 학생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 심폐소생술 실시 1분 후 의식 찾음)

의식 잃고 쓰러진 행인 CPR 실시 사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상설 CPR 체험장」 교육 수료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행인을 신속한 심폐소생술 실시로 의식 회복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린 미담사례

❑ 출동 개요

○ 일 시 : 2015.4.9.(목) 19:04

○ 장 소 : 강서구 내발산동 749-8 마곡수명산파크 2단지 입구

○ 구 급 대 :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대

○ 출동 시 상황

✓ 행인(김00, 51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최근 디스크 수술 경력 있음)

✓ 이수빈 학생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 심폐소생술 실시 1분 후 의식 찾음)

○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19:04) 장을 보던 행인 쓰러짐 →119신고는 옆에 있던 다른 시민이 신고함

(19:05) 장 건너편에 있던 이수빈 학생이 의식 없음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19:06) 행인 의식 돌아옴

(19:13) 구급대(현장대응단 구급차)에 의해 이대목동병원 이송

→ 4.10(금) 퇴 원 : 이대목동병원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

❑ 상설 CPR 체험장 교육

○ 일시/장소 : 2015.4.9.(목) 15:00 / 상설 CPR 체험장

○ 교육 수료 : 이수빈(여, 11세) *수명초등학교 4학년 4반

○ 교육 계기 : 평소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신문 보도와 인터넷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CPR을 배우기 위하여 강서소방서 방문

< 내부 보고서 >

이수빈 학생 교육 장면
< 어머니 핸드폰 촬영 >

## Ⅵ 주요 교육 사례

### 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 일시 : 2014.7.23.

○ 방문 : 10명(자승 스님 외)

### ② 강서구 지역 오피니언 리더

○ 일시 : 2014.9.14

○ 방문 : 25명(강서구 주요 오피니언 리더)

### ③ 만 2세 아이

○ 일시 : 2014.10.14

○ 참석 : 어미니와 함께

### ④ 강서구 S.F Express 전 직원

○ 일시 : 2014.10.7

○ 참석 : 80명(전 직원)

### ⑤ 국회의원(진성준, 한정애, 김정록)

○ 일시 : 2014.11.14. 외

○ 참석 : 20명(의원 및 보좌관)

### ⑥ 강서구 기관장

○ 일시 : 2015.4.22.(수)

○ 참석 : 강서구청장, 강서경찰서장 등

### ⑦ 강서구의회 이연구 구의장 등 구의원

○ 일시 : 2015.6.11.(목)

○ 참석 : 이연구 구의장, 경기문 부의장 등

⑧ SH공사 서부지역주거단장 및 임직원

○ 기간 : 2015. 3. 11.(수)

○ 참석 : 50명

⑨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 및 임직원

○ 기간 : 2015. 4. 7.(화)

○ 참석 : 60명

⑩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장 및 임직원

○ 기간 : 2015. 5. 7.(목)

○ 참석 : 60명

⑪ 강서구 어린이 기자단

○ 기간 : 2015.5.12.(화)

○ 참석 : 20명

⑫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 기간 : 2015. 4월 ~ 5월(4회)

○ 참석 : 60명

⑬ 호서직업전문학교 학생

○ 기간 : 2015.6.2.~6.3.(2회)

○ 참석 : 71명

⑭ 중국인 관광객 방문 교육

○ 일시 : 2015. 5. 8.(금)

○ 참석 : 34명

○ 방법 : 한국 관광후 중국으로 출국 직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Ⅶ 운 영 성 과

### ☐ 시민 중심의 심폐소생술 교육 환경 조성

○ 방문하기 쉬운 청사 1층에 상설 운영으로 스스럼없이 체험 가능

○ 심폐소생술과 AED사용법을 전문 강사(수호천사)에 의해 교육

### ☐ 서울소방 최초의 상설 교육장으로 전국적 모범 사례로 전파

○ 서울 전 소방서에서 벤치마킹(우리서 이후 종로, 서대문, 동작소방서 등 설치)

○ 국민안전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우리서 사례를 활용 심폐소생술 홍보 활동 전개

### ☐ 심폐소생술 교육장 확산과 언론의 관심 유도

○ 심폐소생술 전용 교육장 설치와 정부차원의 체험교육의 중요성 계기

○ 사례 보도 중심에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체험 등 실습 중심으로 전환 계기

### ☐ 이수빈 학생 사례가 시사하듯 전국민에 홍보 효과 발생

○ 나미혜, 이수빈 학생 심폐소생술 사례 공중파 언론보도

○ 공중파 뉴스를 광고로 환산 시 10억 원 이상의 홍보효과 발생

- 지방파 뉴스 18회 / 종편 뉴스 30회 / 신문 44회 / 인용 보도 100여 회

**♣ 이수빈 학생 심폐소생술 사례 홍보금액 산정**

ex) SBS 8시 뉴스 1회 : 1분 36초 = 31,414천 원

- 계산 : 30초 전국 광고비 9,817천 원 ÷ 30초 × 96초
- 광고비 : SBS 8시 뉴스는 전국방송으로 SA등급에 해당됨

※SBS 광고비 기준

| 구 분 | | SA | A | B | C |
|---|---|---|---|---|---|
| SPOT (전국) | 30초 | 3,471(9,817) | 2,095(6,448) | 599 | 306 |
| | 20초 | 2,603(7,361) | 1,571(4,836) | 499 | 230 |
| | 15초 | 2,169(6,136) | 1,309(4,031) | 374 | 191 |
| ID / 이어서 | | 521 | 314 | 90 | 46 |

전국요금 15최 기준(단위 : 천 원), 2013.11.18. 기준

## Ⅷ 개 선 사 항

### ☐ CPR 체험장 교육 환경 보강

○ 그 동안 냉난방기, 냉장고 등 외적 환경은 보강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

○ 바닥재, 깔판, 빔프로젝트 등 하드웨어적 환경의 보강이 필요

### ☐ 상설 CPR체험장 전담 교육 강사 확보

○ 의용소방대(수호천사)에 의한 시민 교육으로 한계성 노출

- 심폐소생술 교육 자격증은 확보하였으나 비전문 강사로 책임성 한계
- 한명이 아닌 7명이 순환근무로 일치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 체험장 전담 구급대원(or 기간제 근로자 등) 배치로 교육의 책임성 강화

### ☐ 정기 체험 코스 개발, 체험장 활성화 유도 (장기 과제)

○ 의용소방대(수호천사)에 의한 시민 교육으로 한계성 노출

○ 소방안전교육과 CPR체험장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ex.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등 → 인근 호텔과 연계)

### ☐ 심폐소생술 소모품 구매를 위한 CPR 체험장 예산 확보

○ 심폐소생술 교육 소모품(AED 패치 등) 확보를 위한 별도 예산 필요

- 안전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이용하여 소모품 등 구입으로 타 소방서에 비해 많은 예산이 필요
- AED 패치 등 소모품 가격이 많이 높아 충분한 실습 부족 (교육수료 후 만족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반복 사용에 따른 애니 등 주기적 교체(2015년 애니 3개 구입)

### ☐ CPR 체험장 근무 의용소방대원(수호천사)에 대한 자격 강화

○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 강사 자격증 소지자만 전담교육 자격 부여

○ 안전교육 담당자에 의한 교육 능력 향상 교육 강화(월 1회 이상)

# Ⅸ 언 론 보 도

## 〔운영개시〕 강서소방서, 상설 CPR체험장 운영 〈강서양천일보〉

**강서소방서, 상설 CPR체험장 운영**

24시간 상시 개장

[2014-08-25 오전 10:20:00]

강서소방서(서장 권병용)는 '상설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마련하고 21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체험장은 기존에 창고 및 민원실로 사용해 오던 64.5㎡의 1층 공간을 개·보수했다. 운영 인력은 5개 팀 10명으로, 연중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에 중점을 뒀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심정지 환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서울시의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선진 도시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며, 특히 강서구의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서울 평균(8.7%)에도 훨씬 못 미치는 3.3%에 그치는 수준이다. 시애틀은 16.3%, 타이페이는 12%에 이른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가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4분 이내에 CPR을 시행하게 되면 50%까지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권병용 소방서장은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지만 시민들이 CPR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장이 부족해 안타까웠다"면서 "체험장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강서구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미기자(psycky@hanmail.net)

< 2014.8.25.(월) 강서양천신문 >

## 〔사례 1〕 CPR 교육 수료 후 심폐소생술 실시 사례 - 나미혜 주부

### "심폐소생술로 남편 목숨 살려"

**강서소방서, '상설 CPR 체험장' 제 몫 '톡톡'**

[2015-01-12 오전 10:11:00]

4분의 기적! CPR(심폐소생술) 교육이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강서구 방화동에 거주하는 주민 정씨(54)는 지난 12월22일 밤,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서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부인 나씨(49)는 119에 신고 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CPR을 실시했고, 응급실에 도착할 즈음 정씨의 의식이 돌아왔다.

결국 정씨는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CPR을 이행한 부인 덕에 목숨을 건진 것.

그런데 부인 나씨가 사건 발생 보름 여 전인 12월8일 딸과 함께 강서소방서에서 CPR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만약 당시 나씨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남편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셈이다.

나씨는 "강서소방서에서 배운 CPR 때문에 남편이 살았다.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도 소중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CPR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소방서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8월부터 강서소방서(서장 권병용) 청사 1층에서 운영 중인 '상설 CPR 체험장'은 12월25일 현재 1216명이 교육을 수료한 상태며, 언제든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권병용 소방서장은 "강서구 심정지 환자 소생률(3.3%)을 서울 평균(8.7%)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며 "언제든 상설 CPR 체험장을 찾아와 CPR 및 ADE(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배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주기자(gsycky@hanmail.net)

< 2015.1.12.(월) 강서양천신문 >

## 〔사례 2〕 CPR 교육 수료 후 심폐소생술 실시 사례 - 이수빈 학생

강서소방서 『상설 CPR 체험장』 체험 초등학생에 의한 -

### 의식 잃고 쓰러진 행인 CPR 실시 사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상설 CPR 체험장」 교육 수료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행인을 신속한 심폐소생술 실시로 의식 회복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린 미담사례

❑ 출동 개요

- ○ 일 시 : 2015.4.9.(목) 19:04
- ○ 장 소 : 강서구 내발산동 749-8 마곡수명산파크 2단지 입구
- ○ 구 급 대 :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대
- ○ 출동 시 상황
  - ✓ 행인(김○○, 51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최근 디스크 수술 경력 있음)
  - ✓ 이수빈 학생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 (→ 심폐소생술 실시 1분 후 의식 찾음)
- ○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 (19:04) 길을 걷던 행인 쓰러짐 -119신고는 옆에 있던 다른 시민이 신고함
  - (19:05) 길 건너편에 있던 이수빈 학생이 의식 없음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 (19:06) 행인 의식 돌아옴
  - (19:13) 구급대(현장대응단 구급차)에 의해 이대목동병원 이송
  - ➡ 4.10(금) 현 상태 : 이대목동병원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

❑ 상설 CPR 체험장 교육

- ○ 일시/장소 : 2015.4.9.(목) 15:00 / 상설 CPR 체험장
- ○ 교육 수료 : 이수빈(여, 11세) -수명초등학교 4학년 4반
- ○ 교육 계기 : 평소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신문 보도와 인터넷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CPR을 배우기 위하여 강서소방서 방문

《강서소방서 「상설 CPR 체험장」 운영》

- ◇장 소 : 강서소방서 1층 홍사[64.5㎡] → 2014.8.21.부터 운영
- ◇장 비 : 실습 장비(마네킹 14, AED 5), 교육 장비(빔 프로젝트 등)
- ◇교육 수료 인원 : 2,266명(2015.4.10. 현재)
- →체험 사례 : 지술 소년, 강서구청장, 상공회의소, 공항공사, 3살 아기 등

이수빈 학생 교육 장면
< 어머니 핸드폰 촬영 >

< 내부 보고서 >

## 〔언론보도〕 이수빈 학생 사례 - 2015.4.13.(월) 한국일보

# 초등생이 심폐소생술로 50대 아저씨 살렸다

지난 9일 오후 7시4분 서울 강서소방서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니 구급차를 빨리 보내 달라는 신고였다. 곧 소방서 현장대응단이 출동했고, 신고 4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강서소방서 박지은 대원은 12일 "사고 현장에 가보니 희미하게 기력을 되찾아 길바닥에 앉아 있는 남성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고 말했다. 주변에선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아저씨를 살렸다"고 웅성거렸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을 살린 학생은 서울 수명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10·**사진**)양. 이양은 이날 오후 7시쯤 엄마와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서던 길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막 지날 무렵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발을 구르고 있었고 누군가가 "119신고를 해 달라"고 소리쳤다. 어른들도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이양은 불과 4시간 전 배운 심폐소생술 매뉴얼을 떠올렸다.

**서울 수명초교 4학년 이수빈양**

**4시간 전 강서소방서에서 배운 마네킹 실습 떠올리며 흉부압박 길에서 3분 만에 의식 되찾게 해**

**"겁도 났지만 돕고 싶단 마음에… 친구들과 이웃도 함께 배웠으면"**

마침 이양은 이날 오후 강서소방서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상설 CPR(심폐소생술) 체험장'을 방문해 심폐소생술을 배운 터였다. 안전교육기관이 아니라 상설로 심폐소생술만 교육하는 곳은 강서소방서가 유일하다. 지난 3월 서울시가 공모한 어린이기자단에 뽑힌 이양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 소방서를 찾았다. 이날 이양은 담당 소방관에게 1시간 가량 매뉴얼 교육을 받고 마네킹을 상대로 실습까지 마쳤다.

응급상황 당시 이양은 재빨리 남성을 흔들어 반응을 확인했지만 가느다란 숨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의식은 좀체 돌아오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양은 주변 사람에게 남성의 얼굴과 목을 곧게 펴 기도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한 뒤 흉부압박을 실시했다. 그렇게 이 당찬 소녀가 1, 2분 동안 30여 회의 흉부압박을 계속하자 남성은 '푸' 하는 큰 숨소리와 함께 의식을 되찾았다. 단 3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보통 심장이 멎어 4분 이상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중단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양의 처분한 응급조치가 남성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다.

이양은 구급대에 인계된 남성이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었다. 이양은 "구급차가 떠나는 걸 보니 아찔했던 당시 상황이 떠올라 울음이 터졌다"며 "겁도 났지만 배운 대로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고혈압 증세가 있던 이 남성은 곧장 응급실로 이송돼 하루 정도 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퇴원했다. 남성의 가족은 "어린 학생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도와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나중에 커서 구호단체나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양은 "심폐소생술은 내 친구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인 거 같다"며 "친구들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 2015.4.13.(월) 한국일보 사회면 기사 >

# 〔언론보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기획 취재

朝鮮日報

2015년 04월 14일 화요일 A34면 오피니언

萬物相

## 열 살 소녀의 심폐소생술

지난 9일 저녁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아파트 단지 입구. 초등학교 4학년 열 살 이수빈양이 엄마와 장을 보러 나왔다가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살려 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한 아저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쉰한 살 행인이었다. 곁에는 그의 딸이 울먹이며 있었다. 주위에 열댓 명이 모여 있었지만 다들 "어떻게 하지" 하며 발만 굴렀다. 이때 수빈이가 나섰다. 엄마가 쓰러진 이의 기도(氣道)를 열자 수빈이는 능숙하게 가슴을 1분에 30차례씩 누르기를 몇 번 거듭했다. 신발과 양말을 벗겨 혈액 순환이 잘되게 했다. ►행인은 잠시 뒤 '푸' 하는 숨소리를 내며 의식을 되찾았다. 병원으로 옮겨져 이튿날 무사히 퇴원했다. 수빈이는 소방서에서 배운 대로 했다고 말했다. 행인이 쓰러진 현장을 만나기 네 시간 앞서 강서소방서에서 엄마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한 시간 동안 구급대원 지도를 받으며 마네킹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훈련을 했다. 강서소방서는 작년 8월부터 심폐소생 체험 훈련장을 차리고 날마다 오전·오후 두 차례 시민들에게 무료 교육을 해 왔다. ►그제 밤 11시 50분쯤엔 전남 나주 어느 요양병원 4층 직원 휴게실에서 전기매트가 과열돼 불이 났다. 심야 병원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217명이 입원해 있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그러나 사망자는 물론 다친 사람도 한 명 없었다. 불이 나자마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화재경보기에선 비상 경보음이 울렸다. ►병원 야간 근무자 스물두 명은 환자들을 재빨리 아래층으로 대피시켰다.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소화기로 불을 껐다. 모두 평소 훈련하던 대로 움직였다. 불은 간이침대만 조금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다.

1년 전쯤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스물한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다친 화재가 생각난다. 이 병원엔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소화기 열한 개 중 여덟 개는 잠긴 캐비닛에 들어 있었다. 야간 근무자도 몇 안 돼 간호조무사 혼자 불을 끄다 숨졌다. ►몇몇 기업과 구청이 심폐소생술을 가르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많은 사람이 쓰는 시설은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훈련을 시키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건성이기 일쑤다. 이틀 뒤면 세월호 참사 1주기다. 그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줄로만 알았다. 수빈이와 나주 요양병원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안전 의식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김낭기 논설위원

< 2015.4.14.(화) 조선일보 오피니언 >

朝鮮日報

2015년 04월 25일 토요일 B06면 특별기획

# 심장마비 환자 살리려면… 119 올 때까지 '흉부 압박'만이라도 하라

### 초등생도 사람 살리는 심폐소생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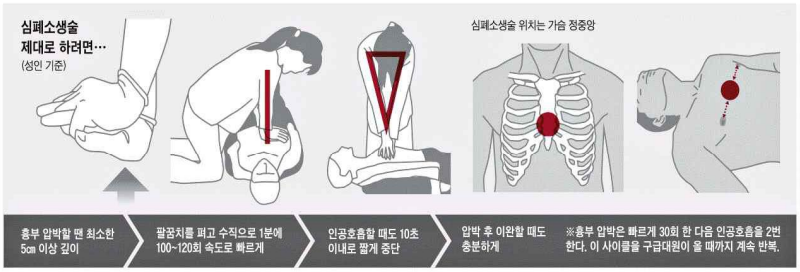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울수명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10)양이 길에 쓰러진 김모(51)씨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선 한 해 3만명 가까운 사람이 심장 정지를 겪는다. 이 중 살아서 병원 문을 나가는 사람은 5%도 되지 않는다.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119구급대나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선 초기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비율이 30~6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8.7%(2013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의 행동이 더욱 빛나는 이유다.

의료계에서는 이양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위원 이승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2009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새벽에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적이 있다"며 "이번엔 그때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어린 만 10세 여학생이 주인공이어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끈다"고 말했다.

**"초등 4학년이면 심폐소생술 할 수 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서소방서 1층 상설 CPR(심폐소생술) 체험장. 이수빈양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곳이다. 이양은 그날 오후 3시쯤 이곳에서 자원봉사자 서정욱씨에게 약 1시간 정도 심폐소생술을 배웠고 4시간 후 김씨의 생명을 구했다. 서씨는 "수빈이는 배우려는 의욕이 강했고, 흉부를 압박하는 자세가 좋아 초등학생치고는 압박 정도가 꽤 강했다"고 말했다. 이양은 쓰러진 김씨를 발견한 직후 1~2분 동안 흉부 압박을 실시했고 김씨는 '푸~'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응급 의료 관계자들은 심폐소생술이 '고품질' 일수록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고품질의 핵심은 '깊고, 빠르고, 중단 없이'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성인은 최소 5㎝ 이상 깊이까지 분당 100~120회 속도로 빠르게 눌러야 하며 인공호흡 등 때문에 중단이 불가피할 때도 10초 이상 멈추면 안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30번을 누른 뒤 인공호흡을 2번 하는 것이 한 사이클(주기)인데 구급 요원이 올 때까지 이 사이클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흉부 압박은 심장을 눌렀다 뗐다 하는 과정을 통해 심장이 뛸 때처럼 몸속 피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인공호흡은 폐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움직임이다.

흉부 압박 방법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압박을 오랫동안 계속하려면 상당한 체력과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았다. 강서소방서 체험장에서 구조대원이 가르쳐준 대로 연습을 인형(애니)을 상대로 흉부 압박을 해봤더니 1분 정도 지나자 이마에서 약간 땀이 배어나왔다. 이선희 소방교는 "팔을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 90도로 눌러야 '오랫동안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령은 비교적 간단**

환자 가슴의 중앙부위를
깊고 빠르게 누르면 돼
중단없이 하는 것이 핵심

**체력·노하우 필요**

팔 펴고 체중 실어 90도로
1분당 100회 이상 눌러야
10초 이상 멈추면 안돼

**生死 가르는 시간, 4분**

심장 멈춘 후 4분 이내에
소생술땐 생존율 50% 이상
첫 발견자 대응 매우 중요

고품질 흉부 압박은 전문 구조대원도 쉽지 않은 일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응급구조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48%나 되고 평균 속도는 분당 64회에 불과하며 평균 깊이는 3.4㎝ 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이 길고 속도가 느리고 깊이가 얕을수록 환자 생존율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기적의 4분**

지난해 12월 서울 방화동에서 50대 남성이 새벽에 집에서 물을 마시러 가다 쓰러졌다. 심장 질환이 있었던 이 남성은 곧 심장이 멎었다. 정확히 13분 후 도착한 119 구급대는 깜짝 놀랐다. 남성의 아내가 계속 심장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응급처치를 받은 남성은 병원에 도착할 때쯤엔 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심장 정지 환자를 다루는 응급 의료계에선 '기적의 4분'이란 말이 있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춘수 강서소방서 홍보교육팀장은 "심장이 멈춘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97%에 이르고, 2분 이내는 90%, 4분 이내는 50% 이상이다. 10분이 지나면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국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5~10분이란 점을 감안하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면 쓰러진 뒤 30분이 지난 환자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작년 말 경기도 수원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51)씨는 15차례 전기 쇼크 치료와 구급대원 6명의 44분에 걸친 심폐소생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환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평소 심폐소생술을 배워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시간적 급박성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를 제일 처음 본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환자가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가족 등이 최초 발견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에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정지 중 집에서 발생한 건수가 64.7%에 달했다. 도로 10.2%, 공공장소 3.4%, 산업·상업 시설이 3.1%였다. 의료시설은 1.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심장 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우선 119구급대에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119구급대원은 "가족이 눈앞에서 쓰러지면 119 번호가 생각이 안 나 112로 전화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들딸이나 부모한테 먼저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수록 구급대 도착이 늦어지고 환자 생명은 더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잘 모르면 흉부 압박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지훈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교수는 "환자가 모르는 사람일 때 인공호흡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절차나 방법을 모른다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그냥 흉부 압박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흐름도 흉부 압박을 더욱 중요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장이 정지하고 호흡이 없어져도 폐 속에는 산소 함유 공기가 5~6L 정도 있기 때문에 처음 5분 정도는 혈액 속 산소 농도가 꽤 높게 유지된다"며 "숙련되지 못한 사람이 인공호흡하느라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것보단 계속 압박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일현 기자

< 2015.4.25.(토) 조선일보 특별기획-섹션 >

## 〔언론보도〕 이수빈 학생 사례 보도

- 방송국 : KBS
- 소개 : 9시뉴스 등
- 횟수 : 8회

- 방송국 : MBC
- 소개 : 뉴스데스크 등
- 횟수 : 6회

- 방송국 : SBS
- 소개 : 8시뉴스 등
- 횟수 : 4회

한국일보
2015년 04월 14일 화요일
A15면 사회



**강서소방서, 50대 남성 살린 초등생 표창**

권병용 서울 강서소방서장은 13일 심폐소생술을 통해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을 살려 화제(**본보 13일자 11면**)가 된 서울 수명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10)양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양은 지난 9일 오후 강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같은 날 강서소방서 상설 CPR체험관에서 배워뒀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구했다. 강서소방서 제공

〈 YTN 뉴스 〉

〈 연합뉴스TV 〉

〈 TV조선 〉

〈 JTBC 〉

〈 YTN scienc 〉

〈 티브로드서울 〉

## 〔정부대응〕 이수빈 학생 심폐소생술 실시 이후 정부 대응

| | | |
|---|---|---|
| 국민안전처 | ○ 범국민 '소소심(소화기 · 소화전 · 심폐소생술)' 익히기 프로그램 확대 계획 발표(2015.4.21.)<br>○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수여(2015.4.27.) | |
| 보건복지부 | ○ 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2015.4.15.)<br>○ '심폐소생술' 체조 동영상 제작 보급(2015.5.12.)<br>○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2015.5.1.) | |
| 교 육 부 | ○ 황우여 삼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심폐소생술 교육(2015.4.20.) | |
| 서울특별시 등 | ○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지시(2015.4.16.)<br>- 소방서 '상설 심폐소생술 실습장' 설치 운영<br>○ 서울시교육청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2015.4.21.일부터 운영)<br>○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체험장 28곳 설치(2015.4.13. 발표) | |

## 〔사내잡지〕 아이러브 119 vol.79

## 〔언론보도〕 강서소방서 CPR체험장 소개

한국일보

2015년 02월 14일 토요일 A09면 사회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1동 강서소방서에 있는 상설 심폐소생술 체험장에서 본보 재지선 기자가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 4분의 기적, 준비되셨나요?

### 본보 기자 심폐소생술 배워보니

이론·실습·연습 2시간이면 거뜬
'흉부압박 30회+인공호흡 2회'
119구급대 올 때까지 반복해야
"갈비뼈 부러질까 망설일 시간 없어
뼈는 붙지만 생명은 다시 못 살려"

음악교사인 장선미(56)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다니던 교회 탁구장에서 시합 도중 쓰러진 지인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당시 현장에는 악사를 포함해 200명이나 있었지만, 가느다란 숨이 깔딱깔딱하다 결국 멈춰 버린 지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마침 장씨는 한 달 전 교사 연수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렸다. 그는 "배운 대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5분 정도 실시하니 119 구급대원들이 왔다"며 "지인이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심폐소생술을 배워 두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반인이 초기 응급조치로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필리핀 세부의 한 리조트로 휴가를 떠났던 한국 경찰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8세 한국 아동을 심폐소생술로 구했고,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에 쓰러진 친구를 같은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살려 냈다. 모두 사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난 12일 기자가 서울 강서소방서 1층에 위치한 상설 심폐소생술 체험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아 보니 숭고한 생명을 살리는 일치고는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이론교육 30분에 실습교육 60분, 개별연습 30분으로 총 2시간이 소요됐고, 교육내용도 어렵지 않았다.

이론교육에서는 최초 목격자가 하는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한지 배운다. 심장이 멈춘 후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97%, 2분 이내의 경우 90%나 되지만, 4분을 넘기면 생존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뇌 손상이 시작된다. 하지만 2013년 기준 서울시에서 4분 이내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는 58%에 그쳤다. 사고 초기 골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다.

실습교육에서는 실습용 마네킹을 눕혀 두고 심제상황인 것을 가정해 흉부압박과 인공호흡법을 배운다. 환자의 양쪽 유두 사이 가운데 지점을 약지 한 손바닥으로 30회 세게 누르고, 환자의 입에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을 2회 하는 게 한 세트다. 이를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손가락 2개를 사용해 같은 부위를 눌러 주면 된다.

물론 실습 도중에도 '갈비뼈가 부러지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아닐까', '어설프게 해서 안 하는 것만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의문과 갈등이 머리 속에 계속 똬리를 틀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미 강서소방서 소방교(응급구조사)는 "부러진 갈비뼈는 다시 붙지만 죽은 생명은 다시 살려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퍼지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전국 초·중학교 교직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 예비교사들의 경우 2016년부터 교육대나 사범대 재학 중 두 차례 이상 심폐소생술 실습을 받아야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지자체 최초로 상설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만들어 2012년 5월부터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강서소방서도 소방서 최초로 상설 체험장을 마련해 지난해 8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지선기자 letmeknow@hk.co.kr

< 2015.2.14.(토) 한국일보 사회면 기사 >

## 〔언론보도〕 강서소방서 CPR체험장 소개

<겨울철 심정지 위험,, 생명 구한 심폐소생술>
KBS, 2015.2.25.

<겨울철 심정지 위험,, 생존율 3배 높이는 '심폐소생술'>
KBS, 2015.2.26.

<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
강서뉴스, 2015.3.26.

< 나도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
복지TV뉴스, 2015.3.27.

## 〔언론보도〕 상설CPR체험장 교육 이모저모

<강서소방서, '심폐소생술' 1만명 교육 실시>
티브로드서울, 2015.4.13.

<노현송 강서구청장 CPR 체험, 기관장 협의회>
2015.4.22.

<중국인 관광객 심폐소생술 체험>
2015.5.8

<어린이기자단 CPR 체험>
2015.5.12

## 〔언론보도〕 상설CPR체험장 소개 및 체험

<강서소방서, 심폐소생술 체험장 개소>
티브로드서울, 2014.8.21.

<강서소방서, 상설 CPR체험장 운영>
강서양천일보, 2014.8.25.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체험, 2014.7.23.>

<한정애 국회의원 체험, 2014.11.14.>

## 〔블로그〕 상설CPR체험장 교육 시민 반응

투맨맘의 자리(2015.5.27.)
"심폐소생술 어렵지않아요~ 배우고 봉사도 실천하는 CPR체험"

티브로드 블로그(2015.8.6.)
"방학 이용해 심폐소생술 배워요"